

- 주요 뉴스: 러시아-우크라이나 4차 평화협상, 양국의 입장차 지속으로 정체
 - 미-중 정상, 화상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및 외교적 해법 필요성 강조
 - 연준 인사들,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필요성 주장
 - 일본은행, 금융완화 유지 및 4월 소비자물가 2% 상승 가능성 제기
- 국제금융시장: 우크라이나 사태,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에 주목
 주가 상승[+1.2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기술주 중심 상승. 주간 상승폭은 '20.11월 이후 최대
 유로 Stoxx6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시 속 0.9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상승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5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 지연으로 하락
 독일도 미국과 유사한 영향으로 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11.90원, +3.8원) 0.3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3/18일	3/17일	전일대비			3/18일	3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63.1	4,411.7	1.17%	국채 금리 10y	미국	2.15%	2.17%	-2bp
	유럽	454.60	450.49	0.91%		독일	0.37%	0.39%	-1bp
	중국	3,251.1	3,215.0	1.12%		한국	28bp	28bp	0bp
	일본	26,827	26,653	0.65%	CDS 5y	중국	54bp	53bp	1bp
	한국	2,707.0	2,694.5	0.46%		EMBI+	539	527	12bp
환율	달러지수	98.23	97.97	0.26%	위험 지표	VIX	23.87	25.67	-7.01%
	유로화	1.1051	1.1091	-0.36%		WTI유	104.7	102.98	1.67%
	엔화	119.17	118.60	-0.48%	원자재	구리	473.1	469.1	0.85%
	위안화	6.3612	6.3470	-0.22%		금	1,921.6	1,942.9	-1.09%
	원화	1,207.6	1,214.3	0.5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러시아-우크라이나 4차 평화협상, 양국의 입장차 지속으로 정체

- 마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는 러시아가 기존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고 있으며 협상이 수 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표명. 러시아 병력 철수,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재차 강조
- 푸틴 대통령은 솔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지연시킨다고 주장.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성향의 돈바스 지역에 집중 포격을 가하면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, 러시아군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
- 브렌트유 가격은 양국 협상 교착 속 IEA의 원유 공급 경색 경고로 인해 1.3% 상승했으나 전일보다 상승세 둔화. 한편 3/16일 예정되었던 러시아 정부의 달러채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달러로 이자를 수취했다고 확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-중 정상, 화상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및 외교적 해법 필요성 강조

-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화상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러 제재 등의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,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
- 한편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중국이 바라던 바가 아니며, 중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-러시아의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,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표명

■ 일본은행, 금융완화 유지 및 4월 소비자물가 2% 상승 가능성 제기

- 일본은행은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-0.1%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금리 목표를 0% 내외로 유지하면서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한다고 발표
- 구로다 총재는 4월에 소비자물가가 2%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, 에너지 등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. 다만 4월 인플레이션 2% 상회 시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없다고 평가

■ 연준 인사들,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필요성 주장

-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3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25bp 인상 결정에 반대했으며,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 돌입 및 50bp 금리인상을 제안했다고 표명.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은 금년 정책금리를 3%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
-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연준이 금년 한 차례 이상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. 3월 FOMC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으로 25bp 인상에 동의했으나,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
-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 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수 있다고 발언. 최근의 연준 금리인상이 미국경제의 침체를 초래하지 않으며, 연준은 현재 초완화적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부연
- 연준 내 비둘기파적 인사로 꼽혔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50bp의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. 금년말까지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1.75%~2%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

■ 러시아 중앙은행, 2월에 이어 정책금리를 20%로 동결

- 러시아 중앙은행은 2/28일 금융 안정성 유지 및 물가 상승 차단 목적으로 정책금리를 9.5%에서 20%로 인상한 데 이어, 3월에도 동 수준을 유지. 러시아 경제가 불가피한 일시적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적 변화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18일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: 602만채, 1월(650만채), 예상치(610만채)
- 미국 2월 경기선행지수: 0.3%, 1월(0.3%), 예상치(0.3%)
- 일본 2월 소비자물가지수(전년동월비): 0.9%, 1월(0.5%), 예상치(0.9%)
- 유로존 1월 무역수지: -77억유로, 12월(-97억유로), 예상치(-90억유로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29, E-mail skkim@kcif.or.kr